

창립일 1967.9.17. | 제59권 5호. 2026.2.1.

* 지난주 강단제목 :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사 53:5, 벤전 2:24)

(1부) 오전 8:30 · 인도 : 심한결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2부) 오전 11:00 · 인도 : 박범서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 ★ 입례송
- ★ 예배의 부름
- ★ 응답송
- ★ 예배선언
- ★ 신앙고백
- ★ 경배의 찬양
- ★ 고백과 용서의 말씀
- ★ 주기도
- ★ 성시교독

오르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찬양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같이	
설교자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송) / 다같이	
5. 시편 8편 / 인도자와 회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이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이름다운지요 (1-9)

- 찬송
- 중보의 기도
- 성경봉독
- 찬양
- 말씀의 선포
- 봉헌
- 교회소식
- ★ 결단의 찬송

찬송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 다같이
중보의 기도	(1부) 배승찬 장로 (2부) 양경심 장로
성경봉독	민수기 16:1-3(구약 221쪽), 유다서 1:3-4(신약 397쪽) / 인도자
찬양	(1부) 손 잡아 주소서 / 시온찬양대 (영상)
	(2부) 사랑의 노래 / 시온찬양대 (현장)
말씀의 선포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복음으로 여는 유다서- / 설교자
봉헌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같이
교회소식	설교자
★ 결단의 찬송	예수 전하세 /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사단의 왕국을 깨뜨린 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주의 주

죄에서 해방하신 어린 양 예수 감사하세 찬양하세 증거하세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 ★ 파송의 말씀
- ★ 봉헌기도 · 축도

설교자	
정윤돈 목사	

다음 주 기도 : (1부) 임근일 장로 (2부) 최질규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부서예배

유치부	오전 11: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2랩넌트실
태영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1랩넌트실
어린이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1층 비전홀
중고등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대학청년부	오후 3:3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장소 :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시간 : 오전 10:30 / 오후 7:30 · 장소 : 1층 비전홀
기도	(오전) 박인자 권사	(오후) 이계옥 권사
인도, 설교	(오전) 김양순 목사	(오후) 심한결 목사

다음 주 기도 : (오전) 신혜선 권사 (오후) 이정미 권사

금요심야기도회

		시간 : 오후 8:00 · 장소 : 1층 비전홀
기관보고	소망부	
설교	박범서 목사	

다음 주 기관보고 : 시온성가대

새벽기도회

(월) 심한결 목사	(화) 이현규 목사	(수) 이현규 목사
(목) 박범서 목사	(금) 박범서 목사	(토) 심한결 목사

2026 참사랑교회의 응답

월~토 새벽 5:30
참사랑교회

으적성경 으적복음 으적예수

(이사야 34:16, 디모데후서 3:16-17)

교회소식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에서 새기족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교회소식

1. 2026년도 상반기 참사랑교회 장학생 신정을 받습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 신청대상자 : 2026년 대학입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신청마감 : 2월 14일(토)까지)
2. 매일 구원의 길을 기록하실 분들께서는 본당 앞에 준비된 용지를 가지고 가셔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배시간과 현금안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장소 : 5, 6층 참사랑홀
 - 2) 수요오전예배, 수요오후예배, 금요심야기도회 / 1층 비전홀
 - 3) 매일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화하여 새벽 5시 30분에 전체 소통방에 올라갑니다.
 - 4) 주일 각 부서의 예배시간입니다.
 - (1) 오전 11:00~12:20 유치부 (2) 오후 2:00~3:20 태영아부
 - (3) 오후 2:00~3:20 어린이부, 중고등부 (4) 오후 3:30~4:50 대학청년부
 - (5) 매월 마지막 주일은 오후 2시부터 램년트부서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 5) 디락방 및 지교회 모임은 시간을 정해서 줌이나 전화통화, 유투브를 통해 라이브나 녹화를 하여 양육과 교제와 말씀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6)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토요일에 현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입금하실 때 이름과 현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참사랑교회)
(예 : 000주정 / 반드시 한글기준 7글자 이내)
 - 일반현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 주정, 십일조, 감사, 절기, 차량, 기타현금 등
 - 현당현금 : 신한은행 100-022-072886 • 장학현금 : 신한은행 100-033-576780
 - 선교현금 : 신한은행 100-033-576822 • RUTC현금 : 신한은행 100-035-010731
* 현당, 장학, 선교현금, RUTC현금을 제외한 현금은 일반현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기관 및 교우소식

1. 성도 가정의 장례캡프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슬픔당한 가족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 이미화 권사 부친 - 故 이봉호 성도 / 1월 28일 소천, 1월 30일 발인
 - 2) 정은숙 집사 모친 - 故 김옥순 권사 / 1월 29일 소천, 1월 31일 발인
2. 교역자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정윤돈 담임목사 : 2.2~4 세계대학수련회 - 덕평 RUTC, 2.4~6 제49차 사랑부램년트대회
 - 2) 박범서 목사 : 2.2~4 세계대학수련회 - 덕평 RUTC
3. 대학입학시험 일정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 램년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원, 문정민, 송지수, 안나근, 양승우, 여명, 황세희)
4. 군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주보 14면에 있습니다.)
5.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이영경 집사, 이순덕 권사, 박숙자 집사)

■ 참사랑 RUTC소식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복지, 과학, 예술, 체육, 예능, 교육, 군경, 공무원)

1. 금토일시대를 준비하는 참사랑 RUTC 램년트의 활동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서예교실 : 한 달에 1번(토요일) 10시, 2층 식당. (모집 중)
 - 2) 트럭킹체조교실 : 당분간 운영중지. (담당 : 정수환 집사 010-5527-6067)
 - 3) 스키&스노보드 : 동계. (담당 : 박찬열 집사 010-8760-0756)
 - 4) 탁구교실 : 매주 토요일 11:50분, 2층 로비. (담당 : 최혜숙 권사 010-9430-9862)
 - 5) 수목캘리그라피 : 첫째, 셋째 토요일 19:00, 2층 식당. (담당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 6) 기타클래스 : 매주 토요일 14, 17, 19시, 4층 당회실. (담당 : 이명 장로 010-2222-7624)
 - 7) 축구&풋살 : 한 달에 1번.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8) 트리니티찬양교실 : 첫째, 셋째 수요일 14:30분, 3층 제2램년트실. (담당 : 임예진 권사 010-6225-9661)
 - 9) 쥬미그림교실 : 첫째, 셋째 토요일 17:30, 2층 식당. (담당 : 조수영 집사 010-3777-8315)
 - 10) 복음영어클래스 : 주일(성인) 19시, 토(RT) 3:30분, 1층 초등부실. (담당 : 주은경 권사 010-9542-8212)
 - 11) 드럼클래스 : 매주 토요일 6, 7시, 5층 참사랑홀. 8시 1층 비전홀.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12) 피아노&기초음악이론 :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친양대실. (담당 : 이석 집사 010-5067-1426)
 13) WIO스마트팜 :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2. 연기, 연극, 영화, 방송, 뮤지컬 팀을 모집합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010-6335-3719)
3. '서예교실'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 이현규 목사 010-9736-3556)
4. 피아노&기초음악이론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심한결 목사 010-8206-2024)
- 1) 강사 : 이석 집사. 2) 레슨방법 : 주1회 1시간(개인레슨). 3) 레슨장소 및 시간 : 4층 친양대실, 요일 협의.
 4) 레슨비(4주 기준, 1인당) : 피아노 10만원 / 기초이론 6만원. 5) 모집인원 마감 때까지.
5. 취미그림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성악 발성반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희권 장로 010-2334-6713)
- 1) 강사 : 김희권 장로. 2) 레슨장소 : 4층 친양대실.
 3) 레슨방법 : ①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회비는 참석할 때마다 1.5만원).
 ②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오후 12시 30분(회비 : 월 6만원).
7. 자전거 티는 방법 교육 및 안전교육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1) 대상 : 초, 중, 고교생. 2) 장소 : 올림픽공원(평화의 광장). 3) 기간 : 모집 후 결정.
 4) 교육기관 : "스포츠레저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 강인규)

■ 훈련 및 집회소식 (해당되는는 분들이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주 토요일 산업선교(오전 9시), 전도학(오전 9시 40분), 핵심예배(오전 10시 30분)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본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층 비전홀에서 핵심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2. 세계대학수련회가 '미래를 정복하라(사62:6-12)'를 주제로 2월 2일(월)부터 4일(수)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3. 제49차 사랑부郿년트대회가 '25시를 누려라(행1:3)'를 주제로 2월 4일(수)부터 6일(금)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4. 세계어린이수련회가 '영원의 근본(딤후3:14-17)'을 주제로 2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본교회는 유년부 일정(2월 9~11일)으로 인도받습니다.
5. 의료법률전문인수련회가 '근원을 해결할 전도 제자들(행1:1-8)'을 주제로 2월 17일(화)부터 18일(수)까지 진행됩니다.

2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1주차	장학생선발공고(1) / 세계대학수련회(2~4, 덕평 RUTC), 제49차 사랑부郿년트대회(4~6, 덕평 RUTC), 청년새내기수련회(7, 참사랑교회)
2주차	2026 세계어린이수련회(유년, 9~11), 2026 세계어린이수련회(초등, 11~13), 중·고등(청소년)합숙 2차(9~12)
3주차	장학위원회모임(15) / 의료법률전문인수련회(17~18)
4주차	상반기 장학금수여식(22) / 237회요제자훈련(24, 덕평 RUTC), 초등합숙 2차(26~28), 뮤년트데이(28)

2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현금위원	(위원장) 여동훈 (위원) 김금남 라종화 신승훈 박희영 양경아 이정미 임소순 임혜연 박주은 이영경
성찬위원	(5층)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라종화 김현 김경희A 배승찬 (6층) 양경심 임근일
안내위원	(위원장) 박동영 (1층) 양경심 김경희A (5층) 최신혜 이은숙 유경선 고진순 (6층) 이정미
주차안내	안수집사 전원

기도제목

■ 역사 기도제목

1. 참사랑교회를 통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도는 '오직성경'안에서 '참진리'를 발견하고, '오직복음'으로 '참치유'를 누리며, '오직예수'로 '참구원'을 증거하는 참사랑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종회를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는 참사랑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성경적인 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회와 협회와 노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3. 한국교회를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2026년 창사랑교회 '식천목표 기도문'

“2026년도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전도자, 제자, 증인의 응답을 앞당기게 하소서”
(1) 즣인가단데시기 선헌의 즣인이 되게 하우스서

- (1) 1월 8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 (2) 복음요절을 암송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인 뿐만 아니라 체질되게 하옵소서.
 - (3) 성경 1독, 성경 쓰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 (4)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그리기를 통하여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5)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6) 5인 1조의 팀을 형성하여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7) 나의 237나라와 나의 선교사를 찾아 선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 (8)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현장에 참사랑RUTC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9) 유튜브 10분 복음소식을 통하여 비대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 (10) 복음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 (11) 300전도캠프 현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공원, 병원, 커피숍, 학교, 역, 직장, 쇼핑센터, 노인정 등)
 - (12) 금토일시대에 사실적인 3가지 뜰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 1) W.I.O 협동조합 (스마트팜, 인공지능, 로봇, 생명, 우주)
 - 2) 치유시스템 구축 (중독, 정신, 영, 건강)
 - 3) 예체능 협동조합 (스키, 체조, 탁구, 축구, 야구 등)
 - 4) 고령화시대준비 (100세 목상요양, 120세 모세건강법)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 5) 복음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이 모델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13) 70나라 여행캠프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 (14) 70나리에 병원, 약국, 목상 등 영혼, 정신, 육신 치유의 절대당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15) 참사랑전도학교,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 참사랑핵심(주일 응답을 주옵소서)

현장을 위한 혁신

70일 유회 (24명)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김경수·강승자·김대식·최정웅·전정아·유경형·리종화·주제진·권혜경·김경환·최복순·전인숙·김원일·**김경희**·임근일(양은숙)
신승호(박영이)·박철수·정여구(이은숙)·김종복(한명희)·박지영

300의 용사 (131명) / “내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면 미디아은 네 손에 넘겨 줄리니(삭7:7)”

정운도 최신영 양은숙 박영인 윤두영 강창숙 최봉식 최신주 박동영 최진희 오국환 이은희 조남은 이은우 최영철 최후순 최명홍 이제우 구자성 송영희 허경열 홍승희 박희순 이수용 이미자 유승범 주은경 이영순 박염재 양경심 강현자 김영길 박혜숙 김석재 손혜숙 여동훈 백소경 서정례 박철남 이상준 서희석 나향님 이승재 심주환 김현숙 이용근 김경희 송길호 최신혜 채용민 이효숙 오신자 정세완 박희영 정수환 최송희 박준민 횡인선 주철우 정선희 권은희 민경환 이명재 구윤진 배형석 박인자 여상훈 노선희 김요셉 김혜정 김남숙 정민호 이서은 최양호 오난희 장성순 박난순 김순자 김 현 임경미 박범서 김진아 김미선 최칠규 한영화 장영호 여준석 김성열 김순호 배승찬 배명자 신옥희 김태운 이남현 오영숙 정향란 강요한 윤홍광 임혜연 박광현 박성혁 이신순 이희숙 왕진상 김선우 김종남 김주영 김영진 변연숙 윤소현 김성순 김요한 백순덕 김금남 김복남 임영순 김옥천 김순이 서성원 박서진 이현주 김선희 강경현 장경희 유경선 정년영 양순우 공영호 박봉기 박준석 이영희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정운돈 최신영 최정웅 전정아 박범서-김진아 심한결-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전인숙-김원일 김정엽 유경형 리중희 주재진-권혜경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이은숙 여동훈 박동영-최진희 최명홍-이계옥 정세완 박희영 신승훈 박영인 김 현 김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칠규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유승범-주은경 김순호 김영진-최혜숙 이 명 이명재 구윤진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계자 이정운 강공이 이순덕 호민수 최재경 인민희 김춘례 김영순 최아영 이은희 박인자 김재귀-장소녀 임영순 박희영 신혜선 조현지 이순근 홍미경 최송화 김주영 김희권 김순자 강공이 이영순 이정마-이상구 김나경 정민호-이서은 김정연 임소순 김경에 전 진 여수아 박숙자 정향란 한영화 윤순옥 나경철-신현식 안현희 전은정 홍명숙 조재형 권구현 정예승 여종원 김지수 안도근 안나근 이민형 정수환 오이라 유풍환-최아현 황혜주 박찬열 이아연 여 명 최영국-김윤지 김소라 최일숙 권현복 임혜연 송길호 김태운 이효숙 임경미 고진순 윤태자 김지후-이현주 여현지 이연규 박난순 김승훈-김혜인 이민수-김숙희 한경숙 조부영 김창균-임예진 김영희 양은숙 채송아 안선희 윤자현 배준서 방주은 정문철 이선아 무명15		
십일조	정운돈 최신영 심한결-정지혜 정은숙 김준자 안민희 김화권 홍미경 정향란 정년영 김계자 양경심 최아영 임영순 이영순 유경선 유충현-강공이 정민호-이서은 최칠규-한영화 이정재-구윤진 정세완-박희영 김나경 최송화 정예승 이주형 김영진 고경훈 박찬열 김태운 정수환 이상구-이정미 여현지 김춘례 배준서 김승훈 인경호 이민수-김숙희 김혜인 조부영 나경철-신현식 박지영 조성균 김영희 임근일 양은숙 최신혜 이 명 노은현 이은희 박주은		
감사헌금	정운돈 최신영 최송화 김칠경 박하규 정향란 김 현 최아영 양경심 정민호-이서은 이영경 이정마-이상구 김현진 김태율 조재형 조연희 정수환 방주은 최신혜 김지후-이현주 박영인 이계옥 유경형-리중화 이은숙 박동영-최진희 나영수 정문철 이선아		
신박헌금	지복순-임상식-임민재-지성순		
차량헌금	박동영-최진희		
임처벌제	최신영		
선교헌금	최신영 박범서-김진아 심한결-정지혜 조현지 이정마-이상구 정년영 정민호-이서은 이은희 이영준 안현희 안민희 강공이 임영순 양경심 최송화 안도근 정수환 박찬열 유승범-주은경 방주은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조성균 임근일-양은숙 최신혜 노은현 정문철-이선아		
스리랑카	정수환 방주은 정민호-이서은		
치유센터	스리랑카 치유센터(2026년도 합계)		
현당헌금	53,000원		
장학헌금	정운돈 최신영 전정아 심한결-정지혜 조현지 이정마-이상구 강공이 임영순 양경심 최칠규-한영화 정민호-이서은 김나경 최송화 김태운 정수환 임미혜 박찬열 방주은 유승범-주은경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김창균-임예진 조성균 박동영-최진희 임근일-양은숙 최신혜 노은현 정문철-이선아 무명		
어학연수	최신영 심한결-정지혜 이정마-이상구 정년영 안민희 강공이 양경심 정민호-이서은 이영준 최송화 정수환 김우진 방주은 유승범-주은경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임근일-양은숙 최신혜 여 명 정문철-이선아		
RUTC헌금	정수환 윤자현		
	정운돈 최신영 김원일-전인숙 정년영 이정마-이상구 강공이 최송화 정수환 방주은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조성균 김영희 임근일-양은숙 최신혜 노은현 정문철-이선아		

* 이름이 누락된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6. 1. 21. ~ 2026. 1. 27.)

현당헌금 (2026년도 합계)	17,412,000원	차량 구입헌금 (2026년도 합계)	80,000원
참사랑 RUTC헌금 (2026년도 합계)	1,174,000원	어학연수헌금 (2026년도 합계)	190,000원
현당대출잔액 : 일본법화 456,000,000엔 (한화 4,332,000,000원 / 100엔환율=950원기준)			
일반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현당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참사랑교회			
선교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822 참사랑교회 장학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780 참사랑교회			
참사랑 RUTC : 신한 100-035-010731 참사랑RUTC			

2026년 구역조직

- 교구장 : 정운돈 목사

- 1교구(1~3지역)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 총무 : 이미자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밀줄은 미션 흡 이상 훈련수료자)
1지역/ 최진희	①오금1 (오국환)	박인자	최진희	최정웅 전정아 박동영 최진희 박서윤 박찬열 배형석 박인자 배영광 정우연 배고은 박점순 이신순 최일숙 조영희 장혁준 최봉식 최신주 최해나
	②오금2 (박동영)	김주영	주은경	정운돈 최신영 정예승 정예준 정예건 이재풍 김주영A 이승현 이지훈 유승범 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유민상 주종성 박학규
2지역/ 이미자	③방이1 (이수용)	양경아	유경선	이수용 이미자 이채은 여준석 양경아 여명 여수아 정철호 유경선 이진수 정동주 정동훈 이은순A 김홍기 문길순 김갑례 임상식 박서이 박필수 박소현 박경구 박도경 박세연
	④방이2 (최칠규)	홍미경	이미자	최재혁 홍미경 최옥현 최모연 밤은진B 윤소현A 윤대현 윤차현 박현우 김장남A 최종현 김명자 김성배 강길자 김윤우
	⑤천호 (유경형)	리종화	홍경아	유경형 라종화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홍형표 유승환 최아현 유나림 유하림 이영숙 박철남
3지역/ 김금남	⑥잠실 (이은숙)	조부영	김소라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황규철 김소라 황다인 황세희 박광현 조영주 박근혜 박지혜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이효수 채송아 채정우 전민식 구순자 정재홍 전혜진 정리아 조현지 오은사 권구현
	⑦송파 (임근일)	양은숙	박승숙	김금남 김수형B 김수민 임근일 양은숙 임혜연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⑧하남 (김경희)	김영희	한영화	이현규 김수진 이시은 김경희A 현백규 김현아 김영희 황혜주 강정자 최칠규 한영화 최종인 손병순 김준석 윤수연 조수영 홍주원 최영국 김윤지 최리오 심성지 심성하 유지열 송수민
⑨서울 경기				장미선 김희서 김윤준 김유진 문예은 최한나 최한별 권우현 정민진 김대옥 박유신 김혜원 김기채 고정호 고경협 스모모 강지우 전영종 김유나 이재준 이시연 손완식 양은예 손보미 손재현 손보국 이정택 이은순B 이가원
				권세미 원철호 홍정아 강예은 강예림 김형준 박현주 김민규 최영희 김정남 김효경 권영숙 구성하 김수정 김성애 이아름에 코 박준영 박준은 박지유 김미선 이해승 이해준 이현우 이은우 조유연 조옹연 이재윤 민희선 김가원 김도원 도상철 체희은 도성용 김경현 강소영 김유원B 김소은 김석재 김정길 박순연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종관 서숙정 이주한 이지한
				윤지은 최명자B 고대중 박형진 류성미 박하능 박하론 안진성 문경화 안서윤 안채윤 안신영 신한수 이은진B 신민승 신연서 한경숙 변지영 박형석 강둘봉 박요셉 구황경 이선미 구아라 구지후 이기덕 김복란 이광훈 김명화 최민지 최민기 천용 이유림 최자원 조현우 이재원 여상훈 노선희 여준후 여선후 박은선 김준일 최숙영 김하은 김유은A 김은성 송형자 정화영 헌주아 한태빈 최영철 최후순 최요한 최지은 최두영 오주희 최하랑 최하윤 최하린 김해수

※ 위 명단은 각 구역원과 기도대상자의 명단입니다.

2026년 구역조직

- 2교구(4~6지역) 담당교역자: 심한결 목사 | 총무: 양정심 장로 - 3교구(7~9지역) 담당교역자: 이현규 목사 | 총무: 최신혜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밀줄은 미션 훈련수료자)
4지역/ 김계자	⑨오금3 (정세완)	박희영	임경미	정세완 박희영 김 현 임경미 김 수 김혜린 정연규 <u>이은숙</u> 김춘례 임수미
	⑩오금4 (주재진)	신혜선	권혜경	김계자 <u>주재진</u> 권혜경 주예진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임경순 <u>양순옥</u> 임선규 김태운 김금녀 이종남 김영순
	⑪오금5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u>최명홍</u> <u>이계옥</u> 최송화 정수환 정재환 전성배 박은서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5지역/ 양경심	⑫울림파1 (김현)	장길순	이영순	유윤식 장길순 유효진 유윤재 이영순 박준석 설정화 박수환
	⑬울림파2 (여동훈)	정년영	김정연	정년영 김정연 한공순 <u>허경열</u>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⑭울림파3 (양경심)	이현주	양경심	박염재 <u>양경심</u> 박주은 박주영 김수형A 이현주 김지후
6지역/ 김순호	⑮강남 (김순호)	손혜옥	임소순	김원일 전인숙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안경호 <u>김순호A</u> 안도근 안나근 안예근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임소순 천혜숙 <u>강현자</u> 김나경 김희경 김경애 이정민 조연희 조재형 조현근 고경훈 김두원 김세희 안선희 안민희 안현희 최영혁 김현진 박진수 윤성희
	⑯구리 (유승범)	이정미	임영순	이상구 이정미 이진형 최가은 이민형 이주형 전진 임영순 임동영 장유진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전은정
7지역/ 이명	⑰오금6 (배승찬)	이명	임예진	박범서 김진아 <u>배승찬</u> 이 명 배준서 배현서 김창균 임예진 김혜원A 김재승 윤순우 구자성 <u>송영희</u> 이명재 구윤진 이미화 김자영C 김민영 김근호 백순범 윤혜영 백소율 백하율 박환희 오상수 원태연 원아연 김희관 김승훈 김혜인
	⑱오금7 (이명)	최혜숙	홍명숙	김영진 최혜숙 김시언 김시아 최아영 흥명숙 손가을 손하늘 <u>오신자</u> 나콜라 박경아 라 나 아멜리 김순자 이병부 <u>김정엽</u> 김윤태 박숙자 <u>도정호</u> 유경순 도규철 이연균 도지민 김선희 <u>김순호B</u> 이 하 안지용 안수현
	⑲오금8 (여준석)	고진순	이선아	<u>오국환</u> 이은희 오유라 오아라 유재숙 고진순 방주은 정문철 이선아 정유호 정은유 김창대 이정임 김아리 김아영 위준승 문정민 김애경
8지역/ 최신혜	⑳문장 장지 (라종화)	최신혜	이가예	송길호 <u>최신혜</u>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신성원 이가예 신현우 신지유 <u>장영균</u> <u>송미경</u> 장현규 장현우 장이준 장이서 장성순 박난순 장하영 장하은 민경환 권은희 나경철 신현식 나주희 나종훈 박진순 박주봉 박주승 장소녀 김지옹 김정B 유정빈
	㉑가락 (정연규)	백소정	정선희	<u>여동훈</u> 백소정 여현지 여종원 여은성 주철우 정선희 주이준 주이언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정민호 이서은 노은현 손상현 <u>이군재</u> 이순근 이수산나 허가이 임혜미
9지역/ 박영인	㉒거여 미천 (최진희)	박영인	이순덕	신승훈 <u>박영인</u> 신동윤 이정윤 이순덕 이영경 호민수 정은숙 박지현 김우순B 이 석 김재우 유충현 <u>강공이</u> 유승호 전주율
	㉓강동 (신승훈)	정향관	김숙희	심한결 정지혜 심주언 심지언 정향관 이민수 김숙희A 이하연 이하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장영호 소선미 합조식 소숙현 합재이 오인태 김자영B 오하림 오하윤 김선옥 김지수 김성재 윤태자 정창호 김미현 정승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복음으로 여는 이사야—

이사야 53:5, 베드로전서 2:24

서론 : 영혼이 절림과 남은 자의 삶

우리의 영혼이 절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가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독서토론회를 하자고 해서 약 10명 정도 모여서 1년 동안 진행한 적이 있다. 그 친구들은 다 똘똘하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서울 범대 등을 나온 친구들이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대회를 해보니 이 친구들이 세상 지식은 많지만, 정작 중요한 인생의 지혜나 영적인 부분은 많이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제안했다. "우리끼리 모여서 말만 하지 말고, 책은 각자 읽고 봉사활동을 하자"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고아원에 가서 1년 동안 애학을 열어 공부를 가르쳤다. 공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도 가르쳤다. 칠판에 쓰고 집중해서 가르치다 보니, 처음에는 학교 숙제도 안 해가고 도시락만 챙겨 가고 책이나 노트도 없던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그 아이들 50명 이상이 다 대학에 갔고,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영혼이 절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공부를 조금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된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돋고 살릴끼를 고민해야 한다. 그 핵심이 복음이고, 내가 가진 지식과 달란트로 섭기는 것이다. 나, 내 가정, 내 자식, 내 교회, 내 사업만 생각하면 항상 행복해질 수 없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3천 제자를 만들고, 이 나라와 민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큰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이다. 그 남은 자들이 나중에 가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신길교회 박 장로님 이야기를 아시는가? 그분은 후자서 교회 현금을 거의 다 감당하고 전도도 도맡아 하셨다. 나중에 거기서 국무총리가 나왔는데, 그분이 항상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출근하셔서 '새벽총리'라고 불렸다. 한 중직자가 내가 교회를 살리겠다고 결단하고 100개 이상의 교회를 지으셨다.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다. 삼성 본사의 전기요금이 안 나올 정도로 모든 것을 올인해서 반도체 사업에 투자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이것이 미래의 먹거리라고 확신하고 올인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다. 남들은 대충 살고 나만을 위해 살 때, 내가 해야 할 일에 24시간 집중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25시, 영원한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남은 자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일을 맡기시고 나중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이것도 대충, 저것도 대충, 생각도 안 하고 시간만 때우고 평계만 대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그것은 남은 자가 될 수 없고 이미 잘려 나간 자가 되는 것이다. 불평, 불만하고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 힘들다"하지 말고, 아침을 최고의 축복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 깊은 호흡을 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시간으로 회복해야 한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 고양이 자세로 3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는데, 그러면 몸의 가스가 다 빠져나간다. 그때 무엇을 생각하겠는가? 스트레칭하면서도 기도하고, 이 닦을 때도 기도한다. 계속 기도하면 더 응답된다. 기도는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과 같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제가 고3때 어머니와 함께 1년 동안 작성기도회를 했는데, 그 후로 느낀 것이 "민사가 협통하구나"라는 것이다. 10년 동안 민사가 협통했다. 대학에 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도와주고, 좋은 밀음의 경영학과 교수님을 만나 매일 접심마다 성경공부를 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다. 영혼이 절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것이다. 그러니 매일 접심시간을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나만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우리 램프런트 청년들이 홍콩으로 어학연수를 가는데, 홍콩 옆에 심천이 있다. 제가 예전에 심천에 스키를 타러 갔을 때 렌탈샵에 들렀는데, 거기 청년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줬다. '아리랑 렌탈'이라는 곳이었는데, 특히 남자직원 한 명이 눈에 띄고 일을 잘했다. 친해서져 물어보니 심천에 살았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심천에 가는데 한번 도와달라. 우리 교회에도 와라"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지도 원래는 기독교였는데요"라고 했다. '원래 기독교'가 어디 있는가? 그만큼 복음을 모르니까 선교사님과 지낼 때는 기독교인이었다가, 한국에 오면 종교가 없어지는 수준인 것이다. 눈을 뜨고 가면 모든 남성이 전도의 밭이 된다. 왜 만나고, 왜 가고, 왜 일을 하고, 왜 밥을 먹는가? 그들을 살리고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다. 군대를 가든 직장을 가든, 가장 먼저 내가 할 일을 잘해야 한다. 제일 어려운 전도가 직장전도다. 쉬운 전도는 노방전도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진짜 남은 자들은 직장전도에서 빛이 되어 성공했다. 다니엘, 에스더 모두 직장생활 승리자들이다. 직장에서 일을 대충 하고 맨날 평계 대고 요령만 피우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전도의 문은 막는 것이다. 말 안 해도 빛과 향기는 다 보인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남들에게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거 내 일 아니에요"라며 도망가면 안 된다. 제가 초등학교 때 청소년당을 하면 도망가는 친구들이 꼭 있었다. 저는 마지막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에 항상 끝까지 청소했다. 도망가는 놈들은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도망가려면 가라지. 여러분이 함께 돋고 남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밥시간은 인생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다. 요새 저는 저녁마다 AI를 가지고 작품을 하나씩 만드는데 아주 재밌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 조금씩 더 낫게

만들면 된다. 음식이 맛있으면 손님이 오고, 작품이 좋으면 다 된다. 그게 목적이지 "왜 나는 안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세계적으로 우주를 정복할 정도로 믿드셔야 한다. 직접 안 해도 기도만 해도 된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24집중해서 25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영원히 남는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밤마다 기도하고 책 읽고 준비하며 천 년의 응답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 렘넌트들이 홍콩 어학연수를 가는데 큰 응답을 받았다. 가서 아무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걱정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대구 대학캠프팀을 보내주셨다. 그쪽 훈련 담당 목사님께서 연락해서 우리 애들 훈련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영적 상태가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 자기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훈련만 한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아니 홍콩까지 가서 왜 훈련만 하느냐, 전도도 하고 관광도 해야지"라고 했다. 결국 우리 애들은 먼저 가서 놀기도 하고 적응하면서 응답을 잘 받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두신 것이다. 홍콩에 갈 때마다 부러운 것이 있다. 홍콩의 어느 교회가 월세가 몇 천만 원인데 장로님들이 돈을 잘 벌어서 헌신하니까 바로비로 옮기더라. 홍콩은 금융과 무역의 허브다. 중국의 무역은 줄어도 홍콩은 많아진다. 모든 돈이 거기로 들어간다. 광동어, 중국어, 영어를 다 쓰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후대들을 그곳에 보내서 세계적인 갑부로, 플랫폼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제가 예전에 부모 없는 아이들 100명 가까이 대학을 보내고 잘 살게 했는데, 서울에 와서 보니 여러분은 다 가능성이 있다. "엄마, 아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여러분은 다 있지 않느냐" 문제는 영혼이 절되지 않는 것이다. 강단에서 여러분이 빨리 중직자, 시역자가 돼서 그런 사람들을 깨우고, 오직 예수로 결론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남들은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어렵지 않다. 밤새 책을 읽고 공부하고 일해도 하나님도 힘들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텔란트이기 때문이다.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24시간 밤새 계속해도 힘들지 않은 것을 여러분은 찾아내야 한다. 그 응답 속에 있으면 남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묻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도 힘들지 않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인생을 헛사는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고 24시간 뛰어들어 하나님도 힘들지 않은 상태,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정주영 회장같은 분들이 다 그렇지 않은가? 비록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지라도, 각 분야에서 '남은 자'로 있었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이 만든 조선소를 통해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시대마다, 나라의 위기 때마다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남은 자가 있었다. 나라와 시대를 위해서 거창하게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가 위기일 때 여러분이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복의 균원이 되어야 한다. 방관하는 자, 남의 일로 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직장이나 회사, 가정과 기문에서도 다 마찬가지다.

1. 이사야서의 배경과 시대적 상황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를 보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겪었지만, 진짜 복음을 깨달았기에 66장이나 되는 대작을 썼다. 이사야서에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 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하다 거룩하다"하는 찬양도 이사야서에 나오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도 다 여기서 인용된 것이다. 온갖 고통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고, 이사야 53장을 "구약의 십자가"라고 부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과 의미를 기록하고 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될 때 모든 문제가 끝난다. 인생을 끌려다니지 마라.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다. 여호와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생각, 마음, 가정, 기문, 나라, 민족까지 다 구원하실 수 있다. 여러분이 사는 직장까지 여호와가 모든 것을 살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시기를 축원드린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으로 태어났다. 웃시야 왕의 사촌으로 본다. 그는 5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며 잘못된 길로 가는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경고하다가, 결국 므낫세 왕에 의해 톱으로 켜져서 순교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유대인 전승기록인 '이사야의 승천'에 자세히 나온다.

이사야서의 전체 흐름은 ① 하나님의 거룩하심 → ② 심판 → ③ 대속 → ④ 회복 → 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사야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무너진 인간을 심판하시되, 고난받는 종이신 메시아를 통하여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이루시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이사야 시대의 배경을 보면 1장 1절에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이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웃시야, 요단,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라고 나온다. 이사야 선지자는 50년 동안 남유다 왕국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며 계속해서 "회개하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선포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스트레스의 연속이었다. 왜냐하면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경 악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남유다 백성들은 "나는 아직 안 망했으니 오늘은 팬쳤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이사야의 눈에는 그들의 멸망이 훤히 보였다. 결국 이렇게 될 것인데 이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보였던 것이다. 우리도 복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았는가? 어떤 청년이나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훤히 보인다. 그 길을 그대로 가서 결국 처참하게 무너지는 데까지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그 길을 간다.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미래가 보이게 된다. "아, 이 렘넌트, 이 후대가 그루터기로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구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야 한다. 반대로 "저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구나"하는 것이 보여야 한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것이 보인다.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의 여성, 복의 근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한다. 그 길이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이비 집을 떠나는 재앙 같고 광야 같아 보일지도도, 요셉이나 디니엘, 에스더의 예정을 보면 그것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었다. 포로, 노예, 속국, 광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임이 보여야 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자가 되어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망할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보여야 한다. 아무것도 모른 채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그들의 실상이 빛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보여야 한다.

(1) 웃시야 왕 : 영적으로 교만하여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스스로 하려다가 나병에 걸려 격리되었다.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면 교만해서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

(2) 요단 왕 : 크게 잘못한 건 없지만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방지했다. 왕으로서 그것을 막고 가르쳐야 했는데 '이래도 돼, 저래도 돼'하며 방임했다. 이것은 악하고 계으므로 것이다. 딜란트 비유에서 한 딜란트 받은 자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평계만 대는 것은 악한 것이다. 무능은 죄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직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계만 대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정말 악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능이며 흑암이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평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재정, 일, 공부, 교회 일, 전도 등 모든 면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번성해야 한다.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마귀는 이 모든 것을 못하게 만든다.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풍요롭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단메시지를 불갑하고 성령충만, 기도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예배드릴 때만 잠깐 은혜를 받았다가, 문밖을 나서는 순간 불이 꺼지듯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땅방울이 꽂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소리도 내지 않고 대충 기도해서야 되겠는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야 되겠는가?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제대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인생을 마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3) 아하스 왕 :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앗수르 제국을 의지했다.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움직이시는데, 세상을 더 의지한다. 여러분이 단 5분이라도 간절히 무릎 끓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조금만 해도 환경,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역시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고의 행복자, 최고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 지구상에서나 민족이 이 사실을 깨닫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고 계신다고 믿어야 한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것이 진짜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매일 세상에 끌려 다니고 불평불만 하며, 응답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아무도 살릴 수 없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것을 얻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 묻어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한 딜란트 받은 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4) 히스기야 왕 : 훌륭한 왕이었고 신앙회복도 이루었지만, 병이 나은 후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을 자랑하는 실수를 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왜 내 돈과 권력을 자랑하는가? 결국 바벨론에게 다 빼앗겼다.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5) 므낫세 왕 :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가장 악한 왕이었다. 이사야를 죽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극진히 섬겼으며,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를 지냈다. 하나님 일은 대충 하면서 마귀 섬기는 일, 나쁜 일, 사기 치는 일은 조폭처럼 극진히 한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강대국들의 횡포, 빙부격차, 신종 질병, 자살률 증가, 정신병, 히카코모리 문제 등이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숨어 있는 청년들이 수십만 명이다. 그들을 끄집어내어 일하게 하면 나라가 산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이 그 치유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2.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1) 남은 자(Remnant,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남은 자'이다. 영어로 렘넌트(Remnant)라고 하며, 그루터기, 거룩한 씨, 새순을 의미한다. 생명이 있는 복음.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한 사람�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온 세상을 덮는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아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라고 했다. 지난 번 산불이 났을 때 온 산이 다 탔지만, 나중에 가보면 숲이 우거져 있다. 땅속에 죽지 않은 그루터기와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어떤 재앙과 환난 속에서도 살아남는 새싹, 생명의 씨앗이 되시기를 바란다. 남은 자가 되어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어야 한다. 직장에서도 신업에서도 조용히 끝까지 남아서 멀리 미래를 보고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진짜 남은 자다.

(2) 임마누엘(Immanuel)을 통하여. 두 번째 방법은 임마누엘이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성취다. 처녀가 어떻게 임태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세상 그 누구도, 부모도, 자녀

도 끝까지 함께 해 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함께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나?"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끝까지 헤어 나오지 못하고 결국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 이 사실을 알려 주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이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임마누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면 된다.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고, 이길 자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싸울 필요도, 소리 지를 필요도, 미워하거나 조급해 할 필요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란다. 모든 열려, 걱정,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께 맡기면 아무 문제가 될게 없다. 어떤 분이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하셨더라. 여러분이 문제와 고통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내 고집과 자아가 깨지고 영혼의 문이 열린다. 그때 친양이 중요하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은 원래 불신자였는데 여름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몸친양을 연습하는 것을 옆에서 계속 보다가 가사가 귀에 들어와서 혼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셨다. 친양은 곡조있는 기도다.

(3)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 세 번째 방법은 이시야 53장에 기록된 십자가 대속이다. "그가 절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십자가는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내가 밀알이 되어 죽음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십자군 전쟁처럼 남을 죽여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대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도 자꾸 땀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하셔서 끝까지 붙드시고 축복의 모델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시대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의 모델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란다.

(4) 새 하늘과 새 땅(하나님 나라)을 통하여,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 나라, 즉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시야 65장, 66장에 나온다. 여호와의 증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가르친다. 신천지는 과천에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고 한다. 예전에 기차에서 여호와의 종인들을 만났는데, 자기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1인당 3천 평, 5천 평씩 땅을 나눠 갖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서울에 땅 많 평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오히려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말을 못 하더라. 또 어떤 사람은 땅에 남고, 14만 4천 명 같은 특수한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늘나라 올라갈 테니까 당신들은 이 땅에서 사세요. 성경에 보면 이 땅은 다 없어진다고 했는데"라고 말해줬더니 깜짝 놀라더라. 빛이 없으면 이상한 소리를 믿는다. 주님은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죽여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음과 응답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이 말씀보다 목사님보다 앞서서 멋대로 살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인도받고 말씀따라 일의따라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도록 기도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보여야 한다. 이시야 62장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결론

정말로 성령충만하고 영호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육하고 변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란다. 만약 여러분이 이시야, 다니엘, 에스더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남은 자', '렘넌트', '그루터기'가 된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 가문, 나라와 민족, 산업과 전세계를 구원하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는다.

참사랑 RUTC현황 (예체능체험교실)

	시간 & 장소	담당자		시간 & 장소	담당자
여행캠프	모집 시	정창호 집사	서예교실	한달 토 10:00, 2층 식당	모집 중
트럭킹체조교실	당분간 운영중지	정수환 집사	스키&스노보드	동계	박천열 집사
탁구교실	매주 토 11:50, 2층	최혜숙 권사	수목캘리그라피	1, 3주 토 19:0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기타클래스	매주 토 14, 17, 19시 4층 당회실	이명 장로	축구&풋살	한달 토 오후	김승훈 집사
트리니티친양교실	1, 3주 수 14:30 3층 제2렘넌트실	임예진 권사	취미그림교실	1, 3주 토 17:30 2층 식당	조수영 집사
복음영어클래스	매주 토 15:30, 주일 19시 1층 어린이부실	주은경 권사	드럼클래스	매주 토 18, 19, 20시 5층 본당, 1층 비전홀	김승훈 집사
피아노& 기초음악이론	개인별 래슨 진행 4층 친양대실	이석 집사	WIO스마트팜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정윤돈 010-8033-5678	부목사	심한결 010-8206-2024	목사(전도파트)	김양순 010-8328-0132
원로목사	최정웅 010-5260-5511		이현규 010-9736-3556	협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부목사	박범서 010-6335-3719	교육전도사	배고은 (네덜란드파송)	사무간사	박난순 010-9930-5558
전도인	최진희 이미자 김금남 김계자 양경심 김순호 이명 최신혜 박영인				
장로	(시무)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리종화 김현 여준석 김경희A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협동) 이군재 전민식 강공이 (해외) 최봉식 (은퇴) 이정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명예) 박철남 김계자 이정윤				
찬양대	(지휘) 고경훈 (오르간) 이서은 임예진 (피아노) 최신영 최송화 이석 (비올라) 채송아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5층, 6층 참사랑홀	태영이부	주일 오후 2:00	3층 제1랩넌트실
	2부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3층 제2랩넌트실
	오후 2:00	1층, 3층, 5층 (부서별 예배)	어린이부	주일 오후 2:00	1층 비전홀
	오후 3: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2:00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수 오전 10:30	1층 비전홀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3:30	5층 참사랑홀
금요십아기도회	수 오후 7:30				
새벽기도회	금 오후 8:00				
월~토 오전 5:30	영상				
자체훈련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새기족훈련	주일 오전 10:20	4층 당회실	산업선교	토 오전 9:00	1층 비전홀
복음소식	주일 오후 12:30	3층 주간보호센터	전도학	토 오전 9:40	
태영아공동육아	수 오전 11:30	3층 제1랩넌트실	핵심요원훈련	토 오전 10:30	
어린이사명자	주일 오후 1:00	3층 제2랩넌트실	중직자대학원	주일 오후 5:00	
중고기도회	주일 오후 1:40	5층 참사랑홀	초등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집중전도신학원	수시	참사랑교회	청소년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국내외선교지

선교사파송 100명(협력 및 후원기관)

- ① 심주환선교사(일본 히로시마) ② 배고은선교사(네덜란드) ③ 이종우선교사(일본) ④ 이성국선교사(러시아)
- ⑤ 횡규영선교사(네팔) ⑥ 임호성목사(서울역 노숙자학교) ⑦ 왕선교사(RTS C107) ⑧ 정화권선교사(필리핀신학교)
- ⑨ 김동길선교사(케냐) ⑩ 서해영선교사(카자흐스탄) ⑪ 문철선교사(팔라완) ⑫ 벤자민목사(인도)
- ⑬ 서진태선교사(스리랑카)

군파송자

[육군] 백승원 송영민

해외파송자 (27)

- [미국] 최형란-권순민(권유나 권유빈)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최해나) 강지우 이진형-최가은 정예준
- [호주] 박영준-김수미(박윤성 박민성) 박영환 [영국] 박경아-니콜라(라나 아멜리) [네덜란드] 배고은
- [일본] 오유라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티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복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운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58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라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개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후대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 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비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었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렘넌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